

칼럼

황만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 · 한방소아과 전문가



부러진 뼈를 빨리 붙게 하려면

'피로 골절(stress fracture)'이란 뼈에 과도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쌓여 미세한 골절 형태로 나타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매우 흔한 부상 형태이다.

사실 피로 골절은 고된 훈련을 많이 하는 스포츠 선수나 행군을 하는 군인처럼 반복적으로 걷거나 뛰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수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일반인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보통 사람들의 문제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 각종 사고로 인해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

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응급조치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김스'를 하고서 뼈가 다 붙을 때까지 조용히 지내는, 즉 시간에만 치료할 말기는 소극적 대처만 떠올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의학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고도 명쾌한 방법이 있다. 2006년 'BK 21' 및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 우수 연구센터 육성 사업 지원으로 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 연구 센터에서 수행된 과학적 논문 '접골탕(接骨湯)이 백서(白鼠)의 골절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이 연구에서는 접골탕의 실제

적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흰쥐의 척골을 의도적으로 부러뜨리고 접골탕을 투여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회복 과정을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확인했다.

골절을 유발한 그 다음날부터 60일간 하루에 한 번씩 접골탕 10ml/kg(체중)을 주사기를 이용해 흰쥐의 위에 직접 투여한 것이다.

X-ray 촬영을 통해 뼈가 접골되는 길이를 살펴본 결과 접골탕을 복용시킨 군에서는 3주째부터 골성장 길이가 0.43±0.27mm로 성장하였고, 8주째에는 0.93±0.40mm로 성장해 현저한 골절 회복 속도를 보였다.

골절 후 아무런 처지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3주째부터 골성장 길이가 0.11±0.19mm로 성장하였고, 8주째에는 0.52±0.27mm로 성장해 일반적인 골절 회복 속도를 보였다.

접골탕을 복용한 흰쥐에서 약 2배 정도 빠르게 골절 상태가 회복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접골탕은 한의학적으로 보혈(補血) 작용을 하는 당귀, 천궁, 녹용이 주요 한약재가 되고 보기(補氣) 작용을 하는 인삼 등과 더불어 골절 치료에 효과가 있는 몇 가지 다른 한약재를 엄밀한 비율로 조합한 것이다.

이에 관한 전통 한의학 문헌이나, 주요 성분인 당귀 등의 효능을 입증한 과학적 논문들의 내용은 생략하지만 골절 회복에 임상적으로 대단히 큰 효과를 보이는 유명한 한약 처방이다.

살다가 만에 하나 피로 골절을 포함해 뼈가 상했을 경우, 임상적으로 오랫동안 확인되었고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접골탕이 있음을 떠올린다면 2배 빠른 골절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社說

중고차 성능 점검 명확해야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니 기대가 크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등록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차의 성능이 어떤지, 사고 난 적은 없는지, 침수된 적은 없는지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체 간 찜짜미로 중고차 성능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반드시 점검을 받게 돼 있음에도 업무 편의상 팩스로 서류만 보내 점검을 받은 것처럼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성능점검서 허위 작성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성능점검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퇴출' 카드를 빼 들었다.

건전한 중고차 매매 시장을 조성하고 성능 점검업을 발전시키려면 매매업자들에게 권한에 맞는 책임도 지워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빠른 시간안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마련해 성능 점검을 허위로 하는 등의 불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學優登仕 배울 학 우 등 사
學優登仕 배울 학 우 등 사
▷ 뜻: 배운 것이 넉넉하면 벼슬에 오를 수 있음.

전통시장 화재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

전통시장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생활공간인 동시에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가 밀집해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6년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의 경우 총 1220여명 점포가 불에 타는 등 피해규모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가 났으며, 매년 시장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유인즉, 일부 대형 전통시장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상당수 안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이 자동소화설비가 완비된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다수의 시장상인들은 시설개선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생계형 사업자이며, 안전의식도 낮아 재난방지시설 개선을 기피하고 있어 전통시장 화재 발생요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다량의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진열되어 있으며 각 점포에 설치된 각종 차양막, 자판 입간판 그리고 불법주차 등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시장내부로 접근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초기화재진압에 실패할 경우 대형 참사

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소방관서에서는 수시로 자체 또는 시·군청 등과 협조하여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최근 전통시장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비정하게 법의 잣대만 들이 되어 단속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영세상인들이 대다수 운영하는 점포들이기 때문이고, 전통시장경기 활성화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예방이 최선의 방법' 임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소방관서에서는 전통시장 중에서도 취약지에 소화기 보급 및 유사시 시장상인들이 초기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함도 설치, 운영하고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매년 발생하는 화재원인을 분석해보면 실화가 상당수 차지하는데 이러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소방시설이 완벽하다 해도 화재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확고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예고 없는 재난으로부터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전통시장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백석중 /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

湖南新聞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편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